

사회와 사회적 욕망의 반영으로서의 드라마

: <대망>과 <다모> 비교를 중심으로

이정흠

'현재적 텍스트'로서의 드라마

드라마는 종종 '현재적 텍스트'로 불린다. 이는 흔히 두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첫째는 드라마상에서 재현되는 인물이나 사회에 대한 묘사들이 현재의 인간상과 사회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드라마에서 재현되는 이야기나 묘사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시청자들의 '욕망'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즉, 드라마는 현재를 반영하는 동시에 현재의 '욕망'을 반영하기에 '현재적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읽기 위한 '텍스트'로서의 드라마가 아니라, 드라마 자체를 규정짓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체로 드라마는 출발 자체가 비현실적이더라도, 그 비현실의 테두리 속에서라도 시청자에게 끊임없이 '그럴듯함'을 보여주고 설득해야 한다. 이는 시청자들의 '욕망'과 관계된 문제이고, 이 '욕망'의 문제는 시청률의 문제 뿐만 아니라 드라마에 대한 평가를 결정짓는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시청자들은 드라마에서 자신들의 일상과 관계 없는 맥락 하에서의 인물이나 상황이 비현실적인 것은 견디지만, 자신들에게 생길 법한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가 비현실적으로 재현되는 것은 견디지 못한다. 예를 들어, 최근 MBC에서 방영중인 <좋은 사람>이란 드라마에서 범죄자의 아들과 형사의 아들이 바뀐다는 비현실적인 '상황' 자체에는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지만, 형사의 아들 얼굴을 동료 형사들이 아무도 모른다는 비현실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한마디씩 하고 넘어간다. 오히려, 동료의 아들 얼굴을 아무도 모를 수 있는 상황이 형사와 범죄자의 아들이 뒤바뀌는 상황보다 더 현실적일 수 있다. 당신은 당신 직장 동료 아들 얼굴을 알고 있는가? 하지만, 대체로 시청자들은 자신이 동료의 아들 얼굴을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형사와 범죄자의 아들이 바뀌는건 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동료의 아들 얼굴을 모르고, 동료가 내 아들 얼굴을 모르는 것은 나의 일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자신과 관계 없는 상황의 비현실성은 견디지만, 자신과 관계가 있는 상황의 비현실성은 받아

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청자의 '욕망'이다. 드라마는 이런 시청자들의 까다로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드라마는 방영 시기의 사회상 뿐만 아니라 그 시기 사람들이 바라는 욕망의 단면을 볼 수 있다는 면에서, 훌륭한 '현재적 텍스트'로 읽어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SBS의 <대망>(2002년 10월 12일 ~ 2003년 1월 5일)과 MBC의 <다모>(2003년 7월 28일 ~ 2003년 9월 9일)를 비교하며 드라마가 사회의 '욕망'을 어떤 식으로 반영/재현하는지에 대해 분석해보려 한다. 이는 드라마를 단순한 유희의 수단이 아닌, 사회를 분석하는 하나의 훌륭한 준거틀로 생각해보려는 시도의 일환이기도 하다.

<대망>과 <다모> 비교: '혁명'에 대한 재현의 차이를 중심으로

<대망>과 <다모>는 약 6개월 정도의 차이를 두고 방영되었기에, 시기적인 차이는 그다지 큰 편이 아니다. 하지만, <대망>과 <다모>가 방영되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대망>이 방영되던 시기는 대선정국이 절정에 달해있던 시기였다. 반면에, <다모>가 방영되던 시기는 새롭게 출발한 정권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가 나오던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두 드라마를 비교해 봤을 때, 흥미롭게 볼 만한 요소가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는 두 드라마에서 재현되는 '혁명'에 관한 부분이다.

<대망>에서 재현된 '성공한' 혁명

<대망>에서 묘사되는 혁명은 기존의 드라마에서 재현되어 온 혁명과는 다른 독특한 점이 있다. <대망>은 기왕의 드라마에서 묘사되던 혁명과는 다르게 일인영웅 중심의 혁명을 추구하지 않는다. <대망>에 기본적으로 깔린 요소는 '공동체주의'이다. 주인공인 무영(장혁 분)은 노자의 '도덕경'의 이상국에 기반을 둔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서로 평등하게 돕고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혁명을 혼자서 이끌려고 하지 않는다. 무영에게 물심양면의 도움을 주는 최선재(박영규 분)나 단애(조민수 분)도 무영을 일인영웅으로 키울 생각은 없다. 다만, 이상적인 공동

체의 구심점을 형성할 인물 정도로만 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등장인물들의 태도는 드라마 상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무영이 꿈꾸는 것은 여진(이요원 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초가집 한 채 뿐이고, 결국 드라마는 그러한 무영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며 끝난다. 혁명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 되는 공동체의 경우, 지도자가 부재하는 대신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고 그 역할 중 어느 것도 튀거나 희미하지 않다. 결국, 이 공동체는 민중적인 수단—마당극 등—을 동원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세자를 왕에 옹립하며 그들 나름의 '작은' 혁명을 완성한다.

<대망>에서 묘사되는 혁명의 또 다른 특징은 '체제를 뒤엎는' 혁명이 아니라는 점과 결국은 혁명이 '성공'했다는 점이다. 대체로 기존의 드라마 상에서 묘사되어 온 혁명은 체제 전복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대망>의 경우, 주인공이 속한 공동체가 결국 자신들이 지지하는 왕을 옹립하며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다. '혁명'이라는 단어를 기존의 체제를 뒤엎고 완전히 새로운 체제를 세우는 뜻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망>의 혁명은 지나치게 체제내화적이고 '혁명답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망>의 특이한 점은 새로운 왕을 옹립하지만, 주인공과 공동체는 체제 내로 편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기존의 체제에서 한발 떨어져 자신들만의 기준과 체계를 가진 독립된 공동체를 유지해 간다. 그렇다면, 이것은 체제를 뒤엎는 혁명보다 가치가 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다모>에서 재현된 '실패한' 혁명

<대망>과 비교해, <다모>의 경우 혁명에 대한 기존 드라마의 재현 체계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편이다. 다모에서의 혁명은 장성백(김민준 분)이라는 일인영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장성백을 결과적으로 이용한 정필준(정욱 분)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얻는게 가장 힘들다고 말하며, 혁명의 성공을 전적으로 장성백에게 의지한다. 장성백이 이끄는 공동체가 있지만, 그곳은 <대망>의 무영이 속한 공동체와는 다르다. 무영이 속한 공동체가 무영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것과 비교해, 장성백이 속한 공동체는 장성백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는 무영은 무영이란 이름으로 불리지만, 장성백은 '장두령'으로 불리는 것만 봐도 간단히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장성백의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매우 무력중심적인 공동체이다. <대망>의 공동체가

사실상 무력이 부재하고, 결국 무력이 아닌 정서적 힘으로 혁명을 추구한 것과 비교해, <다모>의 공동체는 무력을 바탕으로 혁명을 추구한다. 그래서, <대망>에서는 부패한 관리를 골탕 먹이는 선에서 끝나지만, <다모>에서는 부패한 관리를 죽인다.

<다모>에서 묘사되는 혁명은 체제를 뒤엎는 혁명이고 결국은 '실패'한다는 점에서도 <대망>과 차이를 보인다. 사실, '혁명'이란 일반적 의미에 더 적합한 혁명을 추구한 것은 <다모>이다. 그런 면에서 <다모>의 혁명이 체제내화적으로 느껴질 요소가 적을 수 있다. 하지만, <다모>에서의 혁명은 결국 권모술수에 의해 오도된 '잘못된' 혁명이다. 이 혁명의 본질에 깔려 있는 것은 왕이 되기를 원하는 야심 많은 관리와 부를 노리는 상인, 그리고 제주도를 원하는 일본이다. 그런 면에서 <다모>는 혁명 자체에 대한 관점이 <대망>에 비해 냉소적인 편이다. 장성백이 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는 루쉰에게서 가져왔을 법한 대사를 읊지만, <다모>는 그 대사 만큼의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특히, 혁명에 일본이 개입하는 순간, 이 혁명은 필연적으로 패배해야 하며 애초부터 정당하지 못했다고 손쉽게 규정되어 버린다. 그 혁명에 투영된 민중적 노력이나 관점 등은 애초부터 충실히 묘사되지 못하였고 그럴 의지 또한 느껴지지 않은 편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보기 좋은 모습이 자주 묘사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죽어 나갈 때 슬픈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매우 감정적인 기호에만 한정되어 전달될 뿐이다. 즉,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에 한정될 뿐, 그 공동체와 구성원들이 어떻게 혁명과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묘사가 되지 않고 있다.

역사물 <대망>과 멜로 드라마 <다모>

이러한 두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혁명의 차이는 <대망>과 <다모>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드라마 노선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대망>의 경우 끈질기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설파한다. 무영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묘사 뿐만 아니라, 단애가 이끄는 여성들의 공동체인 '사우곡'에 대한 묘사 등은 <대망>이 얼마나 이야기의 중심에 공동체를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반면, <다모>의 경우 채옥(하지원 분)과 황보윤(이서진 분), 그리고 장성백 사이의 삼각관계가 드라마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다. <대망>에서 무영과 여진, 그리고 시영(한재석 분)의

삼각관계가 묘사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와 갈등을 부각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망>이 역사물이라면, <다모>는 멜로 드라마에 가깝다. 이것은 <대망>과 <다모>의 노선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대망>이 시대적/사회적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라면, <다모>는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끌어들이 개인적인 운명과 관계에 얽힌 '개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이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어느 드라마가 어느 드라마 보다 우수하다는 간단명료한 판단 기준으로 가를 수 있는 그런 차이는 아니다. 드라마의 컨셉 자체가 틀리고, 결과물로 나온 드라마는 그 컨셉의 차이를 잘 보여주었을 뿐이다. 내가 보기에 이 컨셉의 차이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시청 타겟의 차이부터 시작하여 기획의도, 시청률에 대한 인식 차이 등 여러가지 차이가 기획 컨셉의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사회적 차이를 좀더 특화시켜 분석에 이용해 보겠다.

'현재적 텍스트'로서의 <대망>과 <다모>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망>은 대선정국 한복판의 사회적 상황 하에서 방영되었다. 지금에 와서 당시의 대선을 떠올려보면, 당선이 불가능할 것이라 예상된 후보가 이전까지는 볼 수 없던 형태의 민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선에서 승리하였다고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그 대선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망>이 방영되던 시기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기대와 욕망이 팽배해 있던 시기였고, 사람들은 변화의 바람 앞에 그것을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든 다양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무영이나 여진, 동희(손예진 분) 등 체제의 변화를 갈망하는 인물들에 대한 묘사와, 체제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박휘찬(박상원 분)이나 사회 체제 자체에 냉소적인 시영 같은 인물들에 대한 묘사는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다만, 변화에 대한 욕망이 좀더 강하게 드러났던 사회 상황은 <대망>에서 '성공한' 혁명을 통한 새로운 체제의 성립을 묘사하는데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는 <대망>이 당시의 사회적 '욕망'을 어느 정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비교해, <다모>가 방영된 시기의 사회적 상황은 <대망> 방영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이라크전 파병 결정, 노조에 대한 보수적 관점 등 새로운 정권의 보수적인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과 '여전히' 혼란한 정국은 사회적으로 어떤 정치적 냉소주의를 팽배하게 하였다. 변화에 대한 강렬한 욕망과 믿음이 하나 들쭉 부서져 나가는 상황에서 가장 손쉽게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관심과 냉소이다. <다모>가 <대망>과 비슷한 역사적 상황과 그 아래에서의 혁명을 기본설정으로 두고 주인공들 간의 멜로 드라마에 집중한 것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무관심과 냉소가 반영된 재현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거창한 의미와 새로운 사회를 보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것을 욕망하지도 않는다. 그저 골치아픈 것 보다는 보기에 즐겁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욕망한다. <다모>가 <대망>의 공동체주의와 비교해 매우 분절화된 개인주의를 전면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은 이러한 사회적 욕망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욕망과 그 욕망을 재현하는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망>과 <다모>는 매우 '현재적인' 이야기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를 재현하는 드라마의 '현재적 텍스트'로서의 다른 한가지 특성을 잘 보여준다. <대망>에서 묘사되는 복잡다양한 인간 군상에 대한 묘사는 그 자체로 지금 현실의 인간 군상과 연결된다. 야심만만한 인간상, 기회주의적 인간상, 현실에서 괴리되어 살아가는 인간상, 희생적인 인간상 등 <대망>에서 보여지는 매우 폭넓은 인간상은 그 자체로 현실의 인간상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들 인간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인간과 그들이 구성한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이는 결국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모>의 경우는 세명의 주인공의 관계에서 역사의 무게만 제한다면, 현대인들의 사랑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신분의 차이, 질투, 주체할 수 없는 감정으로서의 사랑 등은 현대를 배경으로 한 멜로 드라마에서도 매우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요소이다. 결국, <다모>도 과거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망>과 <다모>가 기본적으로 사극의 틀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현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드라마의 '현재적 텍스트'로서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는 면에서 매우 상징적이다.

사족이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은 드라마와 방송국 간의 관계이다. 대선 정국 당시 <대망>의 방송사인 SBS는 매우 보수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었고, 대선 이후 <다모>의 방송사인 MBC는 대선 정국 당시의 개혁성과 비

판성이 어느정도 희석되어 매우 현실안주적인 관점을 보인다. 거의 무조건적이라고 해도 될 만큼 새로운 체제에 대한 열망을 강렬하게 표현한 <대망>은 사실 SBS란 방송국의 관점과는 상반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 보다는 행정권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MBC와 기본적으로 냉소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깔 <다모> 역시 그다지 관점의 일치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방송사내 드라마국과 보도국의 차이에 기인한 바가 크겠지만, 그럼에도 드라마가 방영 당시의 현재적인 상황과 욕망에 얼마나 영향 받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들의 새로운 욕망

<대망>과 <다모>는 이들 드라마가 불러온 화제에 비해 시청률 자체는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다. <대망>이 김종학과 송지나라는 이름 아래에 있었던 것과 <다모>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반응을 얻은 것을 생각해보면, 평균 시청률 20% 내외는 그다지 좋은 수치라고 볼 수 없다. 이 예상외의 저조한 시청률은 두 드라마 모두 기존의 드라마 문법에서 어느정도 비껴 있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대망>의 경우 복잡한 인물관계와 공동체주의 등의 높은 추상수준으로 인해 일회성으로 즐기는 경우가 많은 드라마 시청자들을 폭넓게 아우르지 못한 편이다. <다모>의 경우는 애초의 시청 타겟 자체가 젊은 층 중심으로 설정되었고, 이러한 혼종적인 장르를 여러 연령대를 아우르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두 드라마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시청률 저조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전반적인 드라마 시청률 하락 시기에 마지막회까지 20% 초 중반의 꾸준한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다르게 생각해야 할 측면도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적으로 최근 3년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드라마는 <네멋대로 해라 (이하 네멋)>라고 생각한다.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 사이에 새로운 기호와 욕망이 형성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20대/30대 초반 시청자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네멋>은 드라마 시장에서 이전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요구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거짓말>, <거침없는 사랑> 등 높은 작품성의 드라마가 시청률 한자리에서 고전한 것과 비교해 <네멋>의 20% 근처의 시청률은 놀라운 발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점차 새로운 시청층이 고정적인 비율로

형성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네멋>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대망>과 <다모>의 꾸준한 시청률과 지지도는 이러한 틈새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복잡하고 혼종적인 장르와 좀더 다양한 소재와 높은 추상수준을 욕망하는 시청층이 <대망>과 <다모>를 꾸준하게 보았고 이는 앞으로 확대되면 되었지 축소될 비율은 아니다. 최근 <옥탑방 고양이>, <앞집 여자> 등 연달아 성공한 MBC의 드라마들이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시도를 했음을 생각해보면,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들의 새로운 욕망의 발생은 좀 더 명확해진다.

<대망>과 <다모>의 내용상의 명확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드라마는 현재의 드라마 시청자들이 드라마에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드라마들은 '블루'와 '액션'이라는 천편일률적인 소재에 <야인시대>와 같은 왜곡되고 몰역사적이며 선정적인 드라마들이 대세를 이루어 왔다. 사실, 이러한 드라마들이 일시적으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끌었고 높은 시청률을 거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는 당시에 요구되었던 시청자들의 욕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의 고착화는 전반적인 드라마 시청률 하락을 가지고 왔다. 시청자들의 다변화하는 욕망을 고착화된 소재와 내용으로 계속해서 충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망>과 <다모>는 이러한 고착화되고 안정지향적인 드라마 제작 현실에서, 시청자들의 좀더 새롭고 다양한 욕망을 반영하려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그리고, 이들 두 드라마 모두 열광적인 지지자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은 <대망>과 <다모> 모두 시청자의 변화하는 욕망을 어느정도 포착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드라마는 현재를 반영하고 현재의 욕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시청률과 상업성의 영역에서만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드라마에 반영된 현실과 욕망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는 성찰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우리 개인에 대한 성찰인 동시에 시대와 사회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다. <대망>에서 드러났던 낙관적인 미래가 <다모>의 냉소적인 현재로 전이된 현실. 그것은 성찰하지 않고 과거의 악습을 답습하는 보수지향적인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드라마가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사회의 현재 모습과 욕망의 반영이라면, 우리는 사회와 욕망에 대한 성찰을 통해 그것을 반영하고 재현하는 것만이 아닌 새로운 사회상과 희망을 구조화하고 담론화하는 하나의 훌륭한 공적 장으로서 드라마를 이용할 수

도 있지 않을까.